

‘소비와 윤리’ 교과목 수강 대학생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과 실천행동의 변화

A Study on Changes in Cognition and Practice of Undergraduate Students After Taking the Course ‘Consumption and Ethics’

천경희·송인숙·홍연금*·윤명애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주거학 전공

Chun, Kyung Hee·Song, In Sook·Hong, Yeon Geum·Yoon, Myung Ae
Dept. of Consumer and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changes in ethical consumption practices after taking an undergraduate course 'Consumption and Ethics'. Through Qualitative &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students' pre-course and post-course attitudes were compared to understand changes in behavior.

Before taking the course 'Consumption and Ethics', undergraduate participants displayed little regard for ethical consumption, instead displaying primary sensitivity to price and values based on self-centered and conspicuous consumption. After taking the course 'Consumption and Ethics', participants displayed a more altruistic awareness of consumption on society and the environment. In addition, participants displayed a stronger sense of pride as ethical consumer. These emerging values were contrasted with conflicting feelings resulting from the higher prices often associated with ethical products, feelings of regret resulting from ethically-based impulse purchases, and an inability to categorically evaluate the reliability of available information on the ethical products. However, participants demonstrated a willingness to practice ethical consumption and recommend ethical consumption to their friends and neighbors. Overall, participants in the study demonstrated a strong shift to be an ethical consumer as a result of taking the course 'Consumption and Ethics'.

Keywords: undergraduates, ethical consumption, social responsibility,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consumer education

I. 서론

오늘날 물질주의적 가치에 기반을 둔 대량 소비사회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의 상당부분은 습관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다(Chartrand,

2005; Dijksterhuis *et al.*, 2005; Simonson, 2005). 또한 자본에 의해 끊임없이 욕구가 창출되어 과잉소비나 과시 소비에 따른 문제도 심각하다. 이러한 소비행동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등 자연생태계 환경의 변화 뿐 아니라 빈부격차, 삶의 불만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

* Corresponding Author: Hong, Yeon Geum
Tel: 02-2164-4408, Fax: 02-2164-4301
Email: geumi719@hanmail.net

지고 있으며 소비습관과 소비태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 선택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나아가 전 지구촌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자연생태 등의 면에서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 소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흔히 착한 소비라고도 부르는 윤리적 소비는 환경과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친환경제품, 공정무역제품, 로컬푸드 등 윤리적 제품을 구매하는 것뿐 아니라 상거래 소비윤리를 지키거나 비윤리적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절제와 간소한 삶 그리고 더 나아가 기부와 나눔과 같은 소비의 전 범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격과 품질을 고려하는 합리적 소비의 중요성에 대해 오랫동안 교육받아왔기에 이러한 윤리적 소비 실천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고 있다. 그렇지만 뜻이 있는 몇몇 연구자와 단체 그리고 일부 소비자들이 윤리적 소비에 기울이는 관심과 행동의 사회적 영향이 커지며, 소비의 기준과 개념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Hong & Sin, 2011). 하지만 급변하는 환경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들 몇몇의 노력에 의지할 수만은 없으며,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소비자교육을 통해 소비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과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소비자학 분야에서는 소비자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왔지만 주로 소비자권리와 기업의 윤리의식을 강조해온 반면, 소비자의 책임과 윤리의식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진행된 윤리적 소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Park & Kang, 2009; Jung, 2011; Hong, 2009; Hong & Sin, 2010, 2011; Huh, 2011)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윤리의식이 낮거나 실천 경험이 적어 교육을 통한 확산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대학생은 후기 청소년기로서 일정부분 자율적인 소비를 실천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완전하게 독립하기 직전이어서 소비태도와 행동패턴 형성에 중요한 시기이다. 이들 대학생들은 향후 취업을 통해 소득원이 생기면 소비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므로 성인의 소비생활에 대한 준비 시기로도 볼 수 있어, 소비자교육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대학생들은 가처분소득 증가로 소비생활이 확대되는 시기이며 또한 올바른 소비가치관이 형성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윤리적 소비 교육이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필요하며 교육효과도 높을 것이다. 특히 대학생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Hong과 Sin(2010)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행동 수준은 중간정도이며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사회적 책임의식, 이상주의, 낮은 물질주의의 가치 등과 같은 사회심리학적 변인의 영향력이 높았다. 즉 윤리적 소비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소비자의 사회적 의식이나 가치관을 꼽고 있었으며 윤리적 소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적 소비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연구자들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고(Song & Chun, 2009), 강의 교재를 개발하였으며(Chun *et al.*, 2010), 이를 기초로 경기도 소재 C 대학에서 2010년 1학기부터 대학에 '소비와 윤리'라는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여 왔다.

본 연구는 '소비와 윤리'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윤리적 소비에 대한 교과목 수강이 대학생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궁극적으로 여러 대학에 윤리적 소비 관련 교과목의 필요성을 제언함으로써 윤리적 소비 교육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윤리적 소비의 개념과 실천영역

윤리적 소비는 개인의 욕구 충족만이 아닌 환경과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비행동으로 1970년대부터 환경 친화적 소비, 사회적 의식이 있는 소비로 소개되었다. 이들 개념을 간단히 비교하면 먼저, 환경 친화적 소비 행동은 소비자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욕구나 시장의 효율성 뿐 아니라 자신의 소비 행동의 결과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행동(Park, 1997)으로 정의되고 있고, 사회적 의식이 있는 소비행동은 소비자의 소비행동이 환경과 사회적 이슈를 고려하여 결정되고, 이러한 소비행동을 통해 사회의 변화까지 이루고자하는 소비행동으로 소비자의 사회적 참여행동을 통해 기업과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인 소비 행동을 강조하는 소비자시민성(Kim & Rhee, 2008)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윤리적 소비의 개념은 환경 친화적 소비, 사회적 의식이 있는 소비보다 좀 더 확대된 사회적 책임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Mintel(1994)은 윤리적 소비를 ‘압제적인 제도와 군사비를 포함한 윤리적 이슈, 동물 이슈를 고려하여 쇼핑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Barnett *et al.*(2005)은 윤리적 소비를 ‘소비 자체에 대한 통제’라 보고 소비자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였으며, Carne & Matten(2003)은 윤리적 소비를 ‘개별적, 도덕적 신념에 의한 소비 선택을 하는 의식적이고 신중한 선택’이라고 보면서 앞서 제시된 개념과 달리 소비자의 ‘개별적, 도덕적 신념’에 의한 절제된 소비행동을 윤리적 소비로 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Hong 과 Song(2010)은 윤리적 소비를 소비자의 개별적, 도덕적 신념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지속가능한 소비의 책임, 동시대 인류를 위한 책임으로 나누어 소비행동을 구매행동 뿐만이 아닌 자원의 배분, 구매, 사용, 처분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로 확대하여 윤리적 소비의 영역을 구성하였다.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영역에는 대중매체와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환경 친화적 소비’ 혹은 ‘녹색소비’가 대표적인 윤리적 소비의 실천영역 중 하나이며, 제3세계의 노동문제, 빈곤문제, 환경문제를 고려하는 ‘공정무역’도 대표적인 실천영역이다. 또한 지역 사회의 경제를 고려한 ‘로컬구매(Local Buying)’ 와 ‘공동체화폐운동(Community Currency Movement)’,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며 환경을 고려하는 ‘공정여행(Fair Travel)’, 윤리적 기업에 투자하거나 기업의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주주활동 등을 포함한 ‘윤리적 투자(Ethical Investment)’, 비윤리적 상품 및 기업의 이용을 거부하는 ‘불매행동(Boycotts)’,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위한 ‘나눔과 기부행동(Sharing & Donation)’, ‘소비 절제와 자발적 간소화(Voluntary Simplicity Life Style)’ 등도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Hong, 2009). 이와 함께 상거래에서의 소비윤리를 지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윤리적 소비 실천영역이다(Chun *et al.*, 2010).

2.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실증연구

1) 윤리적 소비의 인식

사람들은 윤리적 소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가?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람들은 왜 윤리적 소비를 하게 될까? 소비자들이 처음에 윤리적 소비를 하게 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에서일까? 이타적인 동기에서일까? 와 같은 윤리적 소비의 동기에 대한 연구로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ong과 Song(2010)은 우리나라의 윤리적 소비자를 대상으로 윤리적 소비를 실천 하게 되는 동기와 지속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권유와 가족의 건강,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직업, 자연과 환경 관련 경험 등에 의해 윤리적 소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후 윤리적 소비에 대한 실천 동기가 개인적 만족감, 우리농업 살리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같이 이타적인 것으로 변화하였다. 가족이나 건강과 같은 이기적 동기에 대해서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농업, 환경과 같은 이타적 동기와 동일한 정도로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친환경농산물과 같은 윤리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Hong과 Song(2008)은 윤리적 상품 중 하나인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구매동기를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 친환경농산물 구매자의 주요동기에서는 이기적인 동기와 더불어 환경, 농업, 지역공동체와 같은 이타적 동기가 함께 고려되는 경우와 이기적 동기만 있는 경우로 나뉘어졌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들의 초기 구매동기는 대부분 식품안전, 건강과 같은 이기적 동기였으나 현재 주요 구매동기는 이타적 동기로 변화되었으며 환경과 농업, 지역공동체 등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타적 동기가 발달된 소비자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량과 품목이 증가한 반면, 그렇지 않은 소비자는 구매량이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무역제품 구매의 경우는 구매초기부터 사회적 도덕적인 이유로 구매하였다. Cha와 Ha(2010)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사회적, 도덕적인 이유로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정무역 제품이 품질이 좋을 것 같다는 품질에 대한 인식, 필요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기부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기부를 위해 탐색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낮은 탐색비용,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현시적 소비성향 등이 공정무역 제품에 프리미엄을 지불하며 구매하는 이유로 지적되었다.

공동체화페운동의 경우도 역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경제적 동기보다는 이념적 사회 심리적 이유로 실천하게 되어, 공정무역과 유사하게 사회적이거나 이타적인 동기가 더 강한 사람이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un과 Rhee(2005)는 대전의 한발레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발레츠에 참여하기 위해 가입하는 동기를 살펴보았는데 ‘한발레츠가 추구하는 이념과 취지가 마음에 들어서’, ‘이웃과 함께 하는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등 개인의 경제적 동기보다는 이념적, 사회심리적인 이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보면,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윤리적 제품을 구매하거나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때 처음에는 개인적, 이기적 또는 경제적 동기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이타적인 사회적인 동기로 확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윤리적 소비의 실천

윤리적 소비의 실천과 관련한 연구는 처음에는 친환경 소비행동이나 비윤리적 상거래행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후에 윤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자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윤리적 소비 실천의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윤리적 소비 실천 행동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와 윤리적 패션이나 의복, 식품 등 구체적인 윤리적 제품 소비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윤리적 소비와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들을 윤리적 소비자로 변화하게 되는 계기와 윤리적 소비의 태도와 행동의 관계, 아울러 윤리적 소비 교육프로그램의 방향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친환경 소비행동 연구를 보면, 친환경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관련변인을 찾는 연구들(You *et al.*, 1996; Rhee *et al.*, 1996; You & Sim, 1998a, 1998b; Min & Rhee, 1999; Lee *et al.*, 2000; Kim, 2003; Huh, 2005; Choi & Kim, 2007; Hong & Song, 2008)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를 보면 환경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환경 친화적 소비행동 정도가 높아지고 있어(Kim, 2003; You *et al.*, 1996),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 교육내용에 대해서 Min & Rhee (1999)은 환경 친화적 태도와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비가시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는 교육, 즉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는데, 이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교육내용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윤리적 상거래행동은 윤리적 소비의 기초영역의 하나(Chun *et al.*, 2010)이다. 이에 관한 연구는 주로 비윤리적 상거래행동에 대해 Muncy와 Vitell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30개가 넘는 실증조사가 이루어졌고(Vitell, 2003), 국내에서도 빈번히 조사되어 왔다(Kim, 2004; Jae *et al.*, 2004; Kim, 2006; Song & Jae, 2006). 이들 연구에서는 비윤리적인 상거래를 줄이려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모두 강조하고 있다. 특히 Kim(2006)은 젊은 연령층이 4가지로 구분한 비윤리적 상거래 영역 모두에서 비윤리적 상거래 행동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소비윤리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Jae *et al.*(2004)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용돈액수가 많을수록 비윤리적 행동이 많았으므로, 이들 집단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반적인 윤리적 소비에 대한 실증연구는 최근 들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윤리적 패션제품(Kor, 2009), 또는 윤리적 의복소비(Jung, 2011)와 같이 특정 소비영역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Kor(2009)나 Kim(2009), Hong(2009) 등은 윤리적 소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에 의한 사례연구를 하였으며 Hong & Sin(2010, 2011), Huh(2011), Kim(2010) 등은 윤리적 소비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양적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윤리적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는 윤리적 소비를 하게 된 계기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Kor(2009)는 윤리적 소비자로 평가된 주부 소비자 19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결과, 이들이 부모로부터의 교육과 종교적 커뮤니티를 통해 윤리적 소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Kim(2009)은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 1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한 결과, 가족 및 친구, 대중매체, 사회적 단체 활동 혹은 윤리적 소비 이외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기존의 관심이 연계되어 이를 통해 윤리적 소비에 관한 정보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공익에 일조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회적 책임감 차원’과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행동이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어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의식적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효과성 지각’이 윤리적 소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임을 밝혀내었다. Huh(2011)는 윤리적 소비 중 특히 윤리적 제품 구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윤리적 상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Kim(2010)과 Hong & Sin(2010, 2011)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윤리적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거나 라이프스타일 특성에 따른 차이, 윤리적 소비행동 수준에 따른 집단 분류를 하기도 하였다. 라이프스타일 특성과의 관련연구에서는 자아신뢰, 건강추구형이 윤리적 소비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윤리적 소비행동 수준별 집단으로 분류할 때 수준이 가장 높은 ‘전 영역 적극집단’이 다른 여러 특성과 함께 소비교육경험과 소비윤리관련 매체에 자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다양한 윤리적 소비의 실천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이들 연구들은 윤리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 또는 윤리적 소비 실천행동의 계기나 변화과정을 밝혀내고자 하였는데 공통적으로 교육의 영향을 확인하거나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육내용으로는 지식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포함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윤리적 소비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나, 윤리적 제품 접근성, 정보 부족, 경제적 비용 증가 등이 윤리적 소비 실천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윤리적 소비의 교육 효과

결국 윤리적 소비 실천에는 체계적인 교육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소비 실천을 진작시키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비와 윤리’ 강의를 실시하고 수강 후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과 실천행동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윤리적 소비자로 변화하는데 있어 교육이 어떻게 기여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강의 후 학생들의 인식 및 실천행동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는 교과목의 교육 효과분석을 살펴보고자 하는 여러 연구들(Park, 2004; Youn & Han, 2011; Auh & Jung, 2011; Lee, 2010; Moon, 2012)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연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Park(2004)은 창의성교육의 효과분석을 위해 강의 수강학생을 실험집단으로, 비수강학생을 비교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간 차이를 계량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강의 수강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Youn & Han(2011) 역시 ‘여성과 공학’의 수강이 성인지적 자기

인식과 자기효능감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수강학생과 비수강학생 두 집단을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비교 평가하여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Auh & Jung(2011)은 다문화가족관련 과목의 수강생과 비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를 검증하여 다문화성 인식의 차이를 비교 평가하였으며, Lee(2010)는 초등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6주간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양성평등의식이 향상되었는지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한편, Moon(2012)은 인간발달 교과목을 수강한 후에 대학생의 영유아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질적연구방법인 포커스그룹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대학교육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이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강의를 진행한 이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Moon(2012)의 연구는 교과목 수강 후에 자신이 수강 전에 가졌던 인식과 수강 후에 변화된 인식을 응답하게 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Moon(2012)의 연구에서 활용한 접근방법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Auh & Jung(2011)은 교육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질적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방법이 모색되어야겠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양적 분석과 함께 질적 접근방법으로 수강생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소비와 윤리’ 교과목 수강생들은 수강 전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 ‘소비와 윤리’ 교과목 수강생들은 수강 후 소비생활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연구문제 3 : ‘소비와 윤리’ 교과목 수강생들은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면서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가?

연구문제 4 : ‘소비와 윤리’ 교과목 수강생들은 앞으로 윤리적 소비를 어떻게 실천하고자 하는가?

2. 강의내용 및 진행

본 연구는 대학의 교과목 ‘소비와 윤리’ 강의 수강이 대학생들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과 실천행동의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소비와 윤리’는 소비자의 책임이 중시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윤리적 소비의 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C 대학에 2010년

1학기부터 개설한 교과목이다. 2012년 1학기 현재 총 5개 학기가 개설되었으며 4개의 분반으로 운영되고 있고 1주일에 3시간씩 16주 동안 진행되는 3학점 핵심교양과목이다.

강의 프로그램은 연구를 통해 개발하였으며(Song & Chun, 2009), 이후 단행본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Chun et. al. 2010)를 출간하여 교재로 활용하였다. 강의는 4개 분반 강사가 매주 회의를 통해 논의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의 내용과 진행 방법은 <Table 1>과 같다. 이 교과목은 가치관 정립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Table 1> Course Description of 'Consumption and Ethics'

Week	Theme	Video	Discussion Topic
1		Introduction and Organizing Groups	
2	Characteristics of Modern Consumer Society	Movie: Confessions of a Shopaholic	Characteristics, problems of modern society
3	Consumption Ethics and Ethical Consumption	EBS Special Lecture: Lecture by Helena Norberg-Hodge	Scope of consumer responsibilities and levels of consumption
4	Fundamentals of Ethical Consumption : Consumer Ethics on Trade	PD Note: People trapped in copyright	Sharing students' own experiences of being black consumer
5	Fundamentals of Ethical Consumption : Boycott	KBS Special: Experiment changing world: Alternative entrepreneurs	Planning boycott inside university
6	Fundamentals of Ethical Consumption : Boycott	Consumer Reports: Asbestos detected in baby powder	Boycott and thinking of small traders
7	Growth of Ethical Consumption : Green Consumption	EBS Documentary Prime: Green revolution	Difficulties in being a green consumer
8		Mid-term	
9	Growth of Ethical Consumption : Local Consumption	SBS Special: Happiness in naturalism - Totnes	Practicing local consumption
10	Growth of Ethical Consumption : Fair Trade	MBC Special Documentary: Beautiful trade: Buying and selling hopes	Methods promoting fair trades
11	Growth of Ethical Consumption : Community Currency Movement	EBS One Planet Earth: Economy, money that saves environments	Planning a community currency movement
12	High Level of Ethical Consumption : Voluntary Simplicity Life Style	KBS Special: Harmonic life: Descendants of Helen and Scott Nearing	Recognizing unnecessary consumption
13	High Level of Ethical Consumption : Sharing and Donation	KBS Current Issues : Why do they share?	Dona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14	Practicing Ethical Consumption	Self-examining: Degrees of Ethical Consumption	
15	Ethical Consumption Campaign	Group Presentation: Ethical Consumption Campaign	
16		Final Exam	

피해야 하므로 주제별 핵심 내용의 강의 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토론방식,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동영상의 활용,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실천하면서 조사한 내용을 나눌 수 있는 발표수업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11년 6월 C대학에 재학 중이며 2011년 봄 학기에 ‘소비와 윤리’를 수강한 대학생 1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는 설문형태의 질문에 자유롭게 서술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서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실시하는 갱서베이(Gang Survey)방법을 사용하였다. 갱서베이(Gang Survey)는 일명 집합테스트라고도 하며, 조사대상자를 테스트 룸, 테스트 키친, 이벤트 장소 등에 모아놓고 일제히 조사하는 방법이다. 가장 큰 특징은 일제히 조사하여 한꺼번에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이다(Asano, 1990/1994). 조사목적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등 자료수집과정에서 통제가 가능하므로 질이 높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조사과정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소비와 윤리’ 수업을 듣기 이전의 소비생활을 윤리적 소비 기준에 비추어 평가해보십시오. ② ‘소비와 윤리’ 수업을 듣고 소비에 관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변화된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십시오. ③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면서 갈등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십시오. ④ 앞으로 자신의 소비생활에서 윤리적 소비를 어떻게 실천해갈 지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자료분석은 내용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정리하였다. 먼저, 자료를 정독하여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했으며 확인된 정보는 주제별로 분류하기 쉽게 각각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두었다. 그 다음에 주제별로 분류기준을 설정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분류했는지 검토하였으며 관련 없는 정보들을 찾아서 신중하게 재검토하면서 따로 표시했다. 마지막으로 설정한 주제들 간의 연관성을 탐색하여 범주와 하위범주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대화내용을 하위범주별로 일일이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분석이 끝난 후에 연구자들이 평가 및 토의를 여러 차례 진행함으로써 내용타당도를 높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수강 후 대학생들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과 실천행동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조사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각 질문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였으며,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례를 있는 그대로 인용하면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개방형 응답 자료를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해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음으로써 구조화된 설문지로 얻을 수 있는 자료보다 생생하고 깊이 있는 학생들의 응답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IV. 연구결과

1. ‘소비와 윤리’ 수강 전 소비생활 평가

먼저 ‘소비와 윤리’ 수업을 듣기 이전의 소비생활을 윤리적 소비 기준에 평가해보십시오’ 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는 ‘소비와 윤리’ 교과목을 통해 윤리적 소비의 개념과 실천영역 하나하나에 대해 한 학기 동안 배웠기 때문에

<Table 2>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1)

Variable	Category	Frequency(%)	Variable	Category	Frequency(%)
Gender	Male	77(40.3)	Major	Humanities	28(14.7)
	Female	114(59.7)		Social Science	36(18.8)
Starting Year of University	2011	87(45.5)		Economics /Business	54(28.3)
	2010	44(23.0)		Natural Science /Engineering	24(12.6)
	2009 and before	60(31.4)		Human Ecology	28(14.7)
				Other	21(11.0)

이를 통해 파악한 전반적인 윤리적 소비의 특성에 비추어 자신의 소비생활을 돌아보고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표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수강 전 자신의 평가를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크다', '소비의 기준은 나의 욕구였다', '무조건 짠 것을 찾는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 '명품소비, 과시소비, 충동구매하는 소비를 했다', '소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무지하거나 간과했다' 등의 5가지로 나누어 응답 비율, 응답 사례 수와 함께 대표적인 응답 내용을 살펴보았다.

1)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의 편차 큼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강 전에는 윤리적 소비를 알지 못하거나 심지어 거리낌 없이 비윤리적 소비행동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의 경우는 윤리적 소비를 제한적으로나마 실천해본 경우도 있는 등 학생들 간의 인식의 차이가 컸다.

수강 전에는 윤리적 소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들은 적이 있어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45.0%, 86명).

(사례 148) 수업을 듣기 전에 윤리적 소비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뭘 해야 하는 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사례 157) 로컬 소비, 공정무역, 녹색소비, 불매운동 등의 단어 및 개념들을 아예 모르

고 있었으니 이 정도면 소비자로서 얼마나 무지했는지, 또 윤리적 소비자로써 0점 이었던 것이 당연하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리낌 없이', '비윤리적인 소비행동'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27.7%, 53명). 이들이 말하는 비윤리적 소비행동은 대부분 비윤리적 상거래행동으로 불법 다운로드, 제품 고장 시 자신의 잘못 인정하지 않기, 많이 받은 거스름돈 돌려주지 않기 등이 많았으며 이외에도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기 등의 내용이 있었다.

(사례 130) 전공서적은 모두 제본해서 마련했고, 이런 것이 저작권 침해를 일으키는 불법 행위임을 알았지만 당장 눈앞의 이익을 따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사례 132) 사지 않는 음식을 자주 시식했고, 사지 않을 화장품을 가서 계속 써보고, 음식점 등에 갔을 때도 쓰레기를 놓고 나오기, 밥 먹고 식당에서 녹차 챙기기 등의 행위를 했었다. 그런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몰랐고, 소비자의 권리인 줄 알았다.

일부 윤리적 소비를 실천한 경우는 공정무역 커피 구

<Table 3> Judgment about One's Own Consumption before Taking the Course 'Consumption and Ethics'

* multiple response (n=191)

Judgement about the consumption before taking the course	Frequency*	Percent
had experiences of buying green products and fair trade practices or donating	37	19.4%
had no interests in hearing of the ethical consumption	39	20.4%
didn't know about the ethical consumption	86	45.0%
practiced unethical consumption openly	53	27.7%
criteria of choosing goods was based on one's needs	57	29.8%
spent freely and conspicuously to satisfy on one's needs	72	37.7%
always bought the lower price goods	31	16.2%
believed being a rational consumer is the best practice	29	15.2%
believed brand name was important and spent money to show off	14	7.3%
often bought impulsively	34	17.8%
practiced conspicuous consumption with luxury or famous brands	52	27.2%
mostly went to discount stores or convenience stores	33	17.3%

매나 기부, 분리수거, 소평할 때 비닐봉지 대신 가방 사용하기 등을 실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9.4%, 37명).

(사례 26) 그나마 지켰던 건 녹색소비였다. 비닐 봉지 대신 가방을 가지고 다녔고, 종이 컵이나 일회용 젓가락은 되도록 쓰지 않았다

(사례 129) 환경공학과에 재학하게 되면서 환경과 관련된 공부를 해 친환경제품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작지만 비닐봉지 사용을 적게 하거나 친환경제품을 구입하곤 했다.

2) 소비의 기준은 ‘나의 욕구’

소비를 할 때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욕구”에 따라 구매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29.8%, 57명). 이들은 자신의 욕구를 위해 무조건, 아낌없이, 거리낌 없이 소비하였지만(37.7%, 72명) 그런 소비를 통해 진정한 만족이나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였다.

(사례 24) 이전에는 (소비에 대해)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를 판단하지 못했다. 그냥 내 돈이니까 내가 쓰고 싶은 것에 쓰고 내가 쓰고 싶은 방법으로, 내가 쓰고 싶은 때에 사용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야말로 나만을 위한 소비였던 셈이다.

(사례 44) 지금까지의 나의 소비행동은 타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사례 38) 나는 최신기계에 대한 관심과 욕심이 많아서 돈이 생기면 거의 무조건 원하는 것을 사야했고,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부터 꾸준히 과외를 통해 돈을 벌었고, 버는 족족 쓰기에 바빴던 것 같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사면 뿌듯하고 행복한 건 맞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가 이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3) 무조건 싼 것을 찾는 ‘합리적 소비’

또한 소비를 할 때 가격에 대해 민감하여 ‘무조건 싼 것’을 찾았다는 경우가 많았으며(16.2%, 31명),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 만을 고려하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소비’가 최선이라 여겼다(15.2%, 29명). 생산과 유통 과정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친환경상품과 같은 윤리적 제품은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사례 47) 오로지 경제적인 합리성만 따졌다. 어떻게 생산되고 거래되었는지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더 저렴하면서 품질은 좋은 것들을 샀다.

(사례 6) 평소에 어렵פות하게 윤리적 소비라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물건이 다른 제품보다 비싸면 굳이 그 제품을 사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가격 대비 높은 효용을 따지는 것이 합리적 소비라 믿었다.

(사례 155) 수업을 듣기 이전에는 다양한 소비의 방법이나 어떻게 실천하는 지 등의 지식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그저 합리적인 소비 위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윤리적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값싸고 질 좋으면 최고라는 생각만 가득 차 있었다.

(사례 184) 어렸을 적부터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고만 교육을 받아서 싼 값만을 찾아다녔습니다.

4) 명품소비, 과소비, 충동구매를 하는 소비생활

대학생들은 무조건적으로 브랜드를 중시하거나 외국 브랜드를 선호하면서 과소비자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34.5%, 66명) 이러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소비 행동 중 충동구매가 많다고 반성하고 있었다(17.8%, 34명).

(사례 69) 평소에도 허세 끼고 편안함을 추구해 자발적 간소화는 엄두도 못 냈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도 공정무역 커피는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꺼려했다. 로컬 소비는 커녕 외국 브랜드를 좋아해 바다 건너 오는 옷이나 브랜드 음식을 추구하고.....

(사례 13) 필요 없는 물건들도 쓸데없이 많이 사고, 꽤 샀다. 그러다보니 나의 생활은 한없이 복잡하고 지저분해졌다..... 물건이 쌓일 만큼 쌓여 정신이 없고 점점 더 정리가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특성은 앞서 대학생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며 가격에 민감하다고 한 응답과는 상반되는 태도로 볼 수 있겠다.

5) 소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무지 또는 간과

기타 소비와 윤리 수강 후에 자신의 소비가 환경이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몰랐거나 간과하고 있었다는 점을 반성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와 윤리 교과목이 의도한 교육의 효과를 잘 드러내는 사례라고 판단된다.

(사례 11) 지하상가에서 5천 원짜리 옷을 입고 그 해에 버렸다. 사실 내가 하고 있던 의식주 모두 전 인류에게 해가 되는 소비 행동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웠다.

(사례 154) 또한 귀찮아서 편함을 추구하고자 일회용품을 쓸 때에 환경이 파괴된다는 얘기는 자주 들어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지만 결국에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그냥 사용한 적이 많습니다.

(사례 5) 햄버거, 고기 위주의 식생활에 중독되어서 이것이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면서도 나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을 해치는 소비를 많이 했다.

2. 소비생활에 대한 생각과 행동의 변화

1) 소비생활에 대한 생각의 변화

대학생 대부분은 '소비와 윤리'를 수강하고 소비생활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참조>

'소비와 윤리'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소비생활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윤리적 소비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으며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소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소비의 기준이 좀 더 신중하게 바뀌면서 타인을 고려하는 소비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해당 사례수와 대표적인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윤리적 소비를 의식하고 실천하면서 자부심을 느낌
 대학생들은 관심이 없거나 어렵다고 생각했던 윤리적 소비를 의식하기 시작하였으며(28.8%, 55명), 기존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달라졌다(11.0%, 21명).

(사례 155) 우선적으로 내가 몰랐던 지식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윤리적 소비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 지,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지로 인해 알지 못하고 또 실천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바뀌려고 의식하게 해줬다.

(사례 15) 처음에 윤리적 소비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내가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도 많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도 많다.

(사례 63) 나는 윤리적 소비가 그저 친환경적인 녹색소비만을 지칭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한 학기 수업을 통해 내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윤리적 소비가 많

<Table 4> Opinion about the Consumption after Taking the Course 'Consumption and Ethics'

* multiple response (n=191)

Opinion about the Consumption	Frequency*	Percentage
spend more prudently	57	29.8%
recognize the influence of individual consumption and changed patterns of consumption	66	34.6%
being conscious of an ethical consumption	55	28.8%
have an appropriate understanding of an ethical consumption	21	11.0%
being proud of one's own self as an ethical consumer	23	12.0%
even if only an occasionally , I'll continue to practice ethical consumption	11	5.8%

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배운 윤리적 소비를 조금씩 실천하면서 대학생들은 옳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과 기존의 소비행동 중 잘못했다고 판단한 행동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자신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다(12.0%, 23명)

(사례 157) 애써 공정무역 제품을 찾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하고 나면 마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나눔과 기부를 행한 것처럼 마음이 가볍고 즐거워진다.

(사례 132)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기로 다짐을 하였는데 많은 학생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당당히 걸어 다녀서 상당히 뿌듯하게 지냈다.

(사례 135) 절제하는 소비를 하기 위해 통장을 새로 만들어 어느 정도 한 달 용돈을 넣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일주일치 용돈만 꺼내어 딱 그만큼만 사용하였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잘 지켜지고 무분별한 소비로 이어지지 않아 나 자신에게 굉장히 뿌듯했다

(사례 13) 나 하나의 소비, 나 하나의 불매가 모이고 모여서 권리를 행사하고 기업에 대해 통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느끼는 바가 많았다.

② 소비의 영향을 생각하며 좀 더 신중한 소비 기준 수강생들은 가볍게, 그동안 생각 없이 했던 소비를 좀 더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29.8%, 57명).

(사례 36) 소비할 때 ‘양심’같은 것이 생긴 것 같다. 초콜릿이나 바나나를 살 때 혹시 내가 사먹는 이 초콜릿 때문에 아이들이 착취당하고 있진 않은지, 바나나를 먹음으로써 지구가 좀 더 더워지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

(사례 6) 소비와 윤리 수업을 들으면서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윤리적 소비는 결국 경제의 순환 고리를 거쳐 후에는 나에게 이득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돈을 씀으로써 매 순간 투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열대에는 여러 상

품들이 후보자의 위치로 자신을 뽐내고 있다. 사람과 같이 그 중에는 걸만 반짝반짝 하며 생산과정 등은 여러 사람의 눈물로 얼룩진 것들이 있을 것이다. 나의 가치관에 맞는 신중한 투표를 해야겠다는 생각의 변화를 느꼈다.

(사례 75) 옳은 길인 것은 알지만 머릿 속에 필터가 하나 더 생긴 기분이라 (소비)가 좀 더 무거워진 것 같다.(중략) 하지만 늘 생각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불편하자’라는 것이다.

특히 대학생들은 자신의 소비가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되었고 소비를 할 때의 기준이 변화되었다고 하였다(34.6%, 66명). 이들은 “나의 욕구”, “합리적인 소비” 등의 소비 선택의 기준에서 “타인과 공동체를 고려하는” 소비 의식으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소비를 할 때 거시적, 장기적 관점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사례 184)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은 나 혼자 많은 것을 갖기 보다는 ‘다음 세대와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공평하게 나눠 갖자’라는 의식이 생긴 점입니다.(중략) 그리고 ‘내 소비생활이 사회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는 생각을 하고 물건을 사게 되었습니다.

(사례 23) ‘소비와 윤리’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내 구매 행동이, 나의 소비가 환경과 제3세계의 생산자, 유통, 생산 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만큼 내 행동을 바꾸어 준 계기가 되었다.

이상과 같이 ‘소비와 윤리’ 강의는 대학생들의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여 일상의 소비생활에서 매순간 소비와 윤리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하고 있었다.

(사례 138) 일상에서 수도 없이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 그 순간은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마다 ‘아 맞다 나 소윤(소비와윤리) 들었지’하고 번쩍번쩍하는 것이다.

2) 소비생활 행동의 변화

‘소비와 윤리’ 수강 후 다양한 소비생활 행동의 변화가 있었다. ‘소비와 윤리’ 수강을 한 후에 윤리적 소비 실천의 녹색소비, 공정무역제품 소비, 로컬소비 등 다양한 영역에 해당하는 소비행동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소비행동의 변화를 통해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나누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변화의 내용을 윤리적 소비 실천의 영역에 따라 분류하여 응답의 사례수와 대표적인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5 참조>

- ① 상거래 소비윤리와 구매·불매운동의 실천
대학생들은 불법 다운로드 등을 하지 않아 저작권을

지키고(4.2%, 8명) 구매 의사가 없는 제품에 대한 시식을 하지 않으며(2.1%, 4명), 블랙컨슈머 행동을 하지 않는(1.6%, 3명)등의 상거래 소비윤리를 실천하는 변화를 보였다.

(사례 30) 수업 중 블랙컨슈머와 저작권 침해를 주제로 한 동영상을 보고 심각성을 느껴 그날 바로 불법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지우고 아직 이용기간이 2주나 남았지만 탈퇴하였다.

(사례 2) 불법 영화 다운로드를 약 500GB 넘게 했었는데 수업을 듣고 저작권법의 무서움을 알게 되어 안 받게 되었다.

<Table 5> Life of Consumption after Taking the Course 'Consumption and Ethics'

* multiple response (n=191)

Areas of Ethical Consumption	Life of Consumption	Frequency* (%)	Frequency* (%)
Consumer Ethics on Trade	don't taste sample foods without buying intention	4(2.1)	15(7.9)
	observe a copyright	8(4.2)	
	reject being a black consumer	3(1.6)	
Boycott	boycott products from unethical enterprise	9(4.7)	9(4.7)
Green Consumption	buying or use green product for long periods of time	24(12.6)	98(51.3)
	recycling	12(6.3)	
	walk, bicycle or use a public transportation	9(4.7)	
	avoid using elevators and save energy or water	14(7.3)	
	cut down on using disposables	8(4.2)	
	separate trash, decrease the food waste	8(4.2)	
	aspire to vegetarianism or eat less meat	8(4.2)	
	carry a tumbler	15(7.9)	
Fair Trade	buying fair trade coffee	45(23.6)	55(28.8)
	buying fair trade chocolate	10(5.2)	
Local Consumption	shop in a traditional market	35(18.3)	40(20.9)
	reduce reliance on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use more local products	5(2.6)	
Community Currency Movement	acquire information about community currency movements	1(0.5)	1(0.5)
Voluntary Simplicity Life Style	use everything, reduce waste, keep records of spending	52(27.2)	54(28.3)
	simplify one's living voluntarily through growing a vegetable garden or strengthen one's religious life	2(1.0)	
Sharing and Donation	donate regularly and long-term	15(7.9)	31(16.2)
	support the children to save from starvation	3(1.6)	
	supporting children and society, reduce starvation	9(4.7)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of NGOs: for example Beautiful Store	4(2.1)	
else	practice ethical consumption in general	15(7.9)	31(16.2)
	publicize or promote ethical consumption	16(8.4)	

(사례 39) 블랙컨슈머 짓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리해선 절대로 안 되기도 하지만 내 마음 속의 ‘나’를 조금 더 고결하게 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불매운동 영역에서 대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알게 된 비윤리적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4.7%, 9명)과 사회적 기업의 제품 구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사례 155) 매일 생각 없이 신고 다니던 운동화를 보며 혹시 아동 노동 착취로 만들어진 운동화는 아닐 지 걱정하게 되고 말았다. 이런 생각이 들다보니 자꾸 더 알아보게 되고 사회적 기업 제품이나 공정무역 제품을 찾게 되었다. 일종의 구매운동을 하게 된 셈이다.

(사례 24) 나이키 운동화를 평소에 즐겨 신는데 이것이 어린 아이들의 노동착취를 통해 만들어 지는 것을 깨닫고 나자 나이키 제품을 사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② 녹색소비의 실천

대학생들은 다른 영역에 비해 녹색소비 영역에서의 소비행동 변화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다양했다(51.3%, 98명). 이중 친환경제품이나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으로 구매(12.6%, 24명)하거나 재활용 또는 재사용한다는 경우(6.3%, 12명)가 많았다. 이외에 일반적으로 녹색소비에서 언급되는 가까운 거리는 걸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 이용하기(4.7%, 9명), 에너지나 물 절약하기(7.3%, 14명), 쓰레기 분리수거하기(4.2%, 8명), 육식을 줄이고 채식하기(4.2%, 8명), 텀블러 갖고 다니기(7.9%, 15명) 등의 소비행동을 실천하는 경우가 있었다.

(사례 11) 사소한 실천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는 지하철역에서 학교까지 걸어오기, 손 닦고 휴지 쓰지 않기, 양치질 할 때 컵 쓰기, 매일 먹던 육식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기 등등이다.

(사례 182)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생각났다.(중략) 수업을 듣고 우유를 먹는데 탄소배출량이 적혀 있는 마크를 우유팩에서 보았다. 농산물 적정 가격 등에 대해서 보고 생각하게 되고 가끔 자신의 소비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사례 149) 분리수거용 플라스틱 백을 설치하였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였다. (중략)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기숙사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방까지 올라갔다. 일회용 종이컵 대신 개인용 컵을 마련하여 커피를 타 마심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는 녹색소비의 실천을 하였다.

③ 공정무역 제품의 구매와 로컬소비의 실천

공정무역 제품 구매 실천으로는 공정무역 커피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고(23.6%, 45명) 대형할인마트나 편의점 대신 재래시장, 동네상가를 이용하여(18.3%, 35명) 로컬소비를 실천하려 하고 있었다.

(사례 69) 공정무역 커피도 먹어 보았는데 생각보다 기존 일반 카페의 커피보다 그다지 비싸지 않았다. 내가 공정무역 커피를 먹음으로 인해 제3세계의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메리카노가 달달할 정도로 커피 맛이 좋았다.

(사례 81) 실천해보지는 생각으로 재래시장을 갔고, 슈퍼에서도 ‘친환경마크’, ‘공정무역 표시’가 있는 제품을 골랐다. 예상외로 평소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중략)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 싶어 안 입는 옷과 필요 없는 소품들을 베품시장에 내놓았다. 물건들은 거의 팔렸고, 나 또한 베품시장에서 좋은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었다. 매장에서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었다.

④ 절제와 간소한 삶을 통한 기부와 나눔

물질주의와 과소비, 과시소비로 자신의 소비생활을 평가했던 대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소비를 절제하고 작지만 간소한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소비를 할 때 신중하게 계획적으로 하고 또한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자신의 소비를 되돌아보는 등 간소하게 살고자 노력하였다(27.2%, 52명). 이들은 이처럼 신중하고 책임 있는 소비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사례 161) 심심할 때마다 들러서 샀던 팬시점에 발을 끊었습니다. 그 때는 그 팬들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필요한 게 나올 때까지 가지 않으니 전혀 갈 일이 없었습니다.

(사례 28) 수강 이후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등 물건을 사고 싶은 욕구도 매우 줄었습니다. 실제로 한 달에 10만원 이상을 옷 사는데 소비했지만 이 수업 이후 옷은 사지 않았습니디. 지금 있는 옷으로도 충분히 예쁘게 꾸미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디. 실제로 지금 용돈 받기 2일 전인데 예전에 비해 많은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만 보아도 제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어 뿌듯합니다.

(사례 35) 처음으로 실천해 본 것이 '충동구매 안 하기'였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혹은 웹서핑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더라도 그 즉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해 놓은 후 일주일간 기다렸다가 구매하기로 스스로와 약속을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일주일 후 그 목록을 보니 '내가 이걸 여기에 왜 썼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필요 없는 물건들이 많았다.

절제와 간소한 삶과 더불어 정기적인 기부와 재능기부를 하거나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경우도 있었다(16.2%, 31명). 이들이 관심을 갖고 기부한 곳은 빈곤 국가의 아동을 위한 기부와 아름다운 가게나 동물 보호 단체 등이었다.

(사례 130) 소비를 할 땐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과거 청산(?)의 의미에서 안 입는 옷들을 정리해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사님께 모두 드렸다. 무려 4박스나 되는 양이었고, 최근 모니터를 바꿀 때는 아빠와 집 근처 재활용센터에서 중고 모니터를 저렴하게 구입하였다. 이렇게 작은 생활 습관부터 고쳐 나가려는 노력을 하게 된 것이 내 스스로도 신기하다.

(사례 1) 지금은 학생이라 돈이 부족하여 돈으로

는 힘들지만, 돈만이 기부가 아니라는 생각에 '사랑의 집짓기' 자원봉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⑤ 윤리적 소비를 하면서 즐거움 느끼기

구체적인 영역에 상관없이 윤리적 소비를 꾸준히 실천하게 되었다는 학생들이 있었으며(7.9%, 15명) 혼자서 실천하기보다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윤리적 소비를 알리고 있었다(8.4%, 16명).

(사례 65) 로컬소비에 대해 관심이 많아져 요새는 주말에 근처 시장에서 부모님과 장을 보고 있다. 그 안에서 색다른 재미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사례 10) 종강 과목들이 생기면서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하곤 한다. "너 '소비와 윤리' 수업 듣고 진짜 네 행동에 변화가 오긴 했니? 윤리적 소비를 하니?" 라고. 이 질문에 나는 "너도 들어봐! ^^ 확실히 깨닫는 게 많을 거다." 변화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생기고 있어."라고 대답한다.

3. 윤리적 소비 실천 과정에서 겪는 갈등

윤리적 소비 실천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응답자는 총 71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37.2%였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를 보면, 그동안 해왔던 소비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윤리적 제품에 대한 정보나 접근성이 부족해서, 가격이 부담되어서, 윤리적 소비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한 각 응답 사례와 갈등을 겪는 사람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대표적인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6 참조>

(Table 6) Conflicts in Practicing an Ethical Consumption

* multiple response (n=71)

Conflicts in Practicing an Ethical Consumption	Frequency*	Percentage
current criteria different from former criteria of consumption	27	38.0%
the price of ethical products is high.	14	19.7%
impulse to buy a favorite brand's product.	6	8.5%
inconvenience to practice ethical consumption	20	28.2%
lack of information about or inaccessibility to ethical products	14	19.7%
doubts about the effects of an ethical consumption	10	14.1%

1) 기존의 소비기준과 다르게 습관을 바꾸기 어려움

지금까지 소비할 때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합리적 소비기준과는 달라서(38.0%, 27명), 또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려면 불편하기 때문에(28.2%, 20명) 어렵다고 하였다.

(사례 49) 합리적 소비에 길들여진 소비 관점은 극복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공정무역제품 혹은 친환경제품의 비교적 고가 제품을 구입할 때 주변의 가족, 친구들이 보내는 비합리적 소비라는 편견에 기인한 질타를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사례 133) 윤리적 소비를 배우면서 나의 지식이 그만큼 늘었고, 많이 아는 만큼 윤리적 소비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의식적으로 소비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내 평소 소비습관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바로 경제적 효용성과 윤리 측면 사이에서의 갈등이다. 예를 들어 옷을 많이 사고 싶은데 가격이 싼 것은 환경에 몹시 해로운 제조과정을 거친 것을 알기에 윤리적 소비와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2) 윤리적 제품에 대한 정보와 접근성 부족, 가격부담

대학생들은 윤리적 소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윤리적 제품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실천이 어렵고 (19.7%, 14명) 윤리적 제품은 가격이 비싸서(19.7%, 14명) 갈등을 겪고 있었다.

(사례 18) 우리나라에서 윤리적 소비를 하기에는 너무 비윤리적인 것이 많고 정보도 많이 부족해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 나갈지 막막함을 많이 느끼기도 했다.

(사례 12) 커피를 먹을 때 위치가 가깝기도 하고 더 싸기 때문에 공정무역 커피보다 일반 유통 커피를 사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항상 갈등이 따른다.

(사례 181) 로컬 소비를 직접 해 봤다.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서 시장에 들려 여러 상점에서 물건들을 샀다. 아쉬웠던 것은

온누리 상품권이 다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속의 몇몇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시장을 위해 만들었다는 상품권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상점은 잘 받아주지 않아서 너무 당황스러웠다.

3) 윤리적 소비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

그밖에도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정말로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14.1%, 10명).

(사례 63) 가장 갈등이 생겼던 것은 공정무역이다. 물론 머릿속으로는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우선 내 주머니 사정부터 보게 되고 정말 개도국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기는 할까라는 의구심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좋지 않은 생각 밖에 나지 않아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

(사례 185) 소비 절제를 하며 많은 뿌듯함을 가졌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소비를 줄이면 영세 상인, 소시민들에게 이전보다 더 적은 수입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례 170)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살기 좋은 사회,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데 나는 항상 내 머릿속의 타락한 악마에게 꼬임 당한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 혼자 해서 뭐해' 등등 유희과 갈등한다. 쓰레기를 버릴 때 특히 귀찮고 냄새가 나서 그냥 버리고 싶다. 또 여름이라 가까운 거리에 갈 때도 이동수단을 이용하고 싶다. 이 두 가지가 요즘 최대 고민이다.

4. 윤리적 소비 실천 계획

대학생들은 ‘소비와 윤리’를 수강한 후에 윤리적 소비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앞으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윤리적 소비 각 영역별로 윤리적 상거래, 불매운동, 녹색소비, 로컬소비, 공정무역에 대해 앞으로 더 실천하겠다는 계획

을 보였다. 응답의 내용을 보면 기부와 나눔 59.7%(114명)과 녹색소비 59.2%(113명)를 앞으로 가장 많이 실천하겠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간소한 삶 44.0%(84명)이 뒤를 이었고, 로컬소비 26.7%(51명)와 공정무역 제품 구매 28.8%(55명) 등을 실천하겠다고 한 응답 비율이 비슷했다. 공동체화폐운동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앞으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겠다는 구체적인 응답 내용은 <Table 7>과 같다.

본 장은 이러한 영역별 실천의 변화 중에서 좀 더 주목할 만한 변화를 중심으로 ‘간소한 삶을 이끄는 소비를 줄이거나 신중하게 소비하기’, ‘기부와 나눔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공동체화폐운동에 대한 참여’, ‘윤리적 소비를

<Table 7> Plans for Practicing an Ethical Consumption

* multiple response (n=191)

Areas of Ethical Consumption	Plans of Practicing an Ethical Consumption	Frequency* (%)	Frequency* (%)
Consumer Ethics on Trade	observe copyrights	4(2.1)	6(3.1)
	reject being a black consumer	2(1.0)	
Boycott	boycott products from unethical enterprise	4(2.1)	4(2.1)
Green Consumption	buying or use green product for long periods of time	23(12.0)	113(59.2)
	recycling	12(6.3)	
	walk, bicycle or use public transportation	27(14.1)	
	avoid using elevators and save energy or water	11(5.8)	
	cut down on using disposables	9(4.7)	
	separate trash, decrease the food waste	8(4.2)	
	aspire to vegetarianism or eat less meat	10(5.2)	
	carry a tumbler	10(5.2)	
	use products for a long time	2(1.0)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of pro-environmental organizations	1(0.5)	
Fair Trade	buying fair trade coffee	30(15.7)	55(28.8)
	buying fair trade chocolate	6(3.1)	
	buying fair trade products such as coffee or chocolate	2(1.0)	
	fare tourism	17(8.9)	
Local Consumption	shopping at traditional markets	35(18.3)	51(26.7)
	reduce reliance on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use more local products	15(7.9)	
	increase knowledge of the local community and province	1(0.5)	
Community Currency Movement	trying to participate in community currency movements	2(1.0)	7(3.7)
	education or visits to communities using local currency for example Totness	5(2.6)	
Voluntary Simplicity Life Style	spend prudently/ keep records of spending	75(39.3)	84(44.0)
	tending a vegetable garden	6(3.1)	
	simplify one's living voluntarily through reducing online web searching or talk time	3(1.6)	
Sharing & Donation	donate regularly and long-term	53(27.7)	114(59.7)
	supporting children and society, reduce starvation	3(1.6)	
	sharing one's talent or donating blood	46(24.1)	
	donate through on-line sources to organization and supporters	12(6.3)	
else	practice ethical consumption in general	71(37.2)	108(56.5)
	publicize or promote ethical consumption	31(16.2)	
	choosing an activity or job related to ethical consumption	6(3.1)	

적극적으로 알리기’, 나아가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진로 선택하기 등 5가지에 대해 사례수와 응답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7 참조>

1) 신중하고 계획적인 소비

수강생들은 대부분 앞으로 신중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하겠다고 응답하였다(39.3%, 75명). 용돈기입장을 쓰거나 절제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겠다고 하였다.

(사례 19) 나는 돈이 생기면 앞뒤 생각 않고 막 써대는 무절제한 소비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소비생활의 우선 순위를 정해 그 순서에 따라 돈을 분배한 뒤 계획적으로 소비해야 할 것 같다. 용돈기입장을 쓰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다.

(사례 133) 내 안 좋은 소비습관을 윤리적 소비자로 거듭나기 위해선 소비생활을 계획해야 한다.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지출예산 내역, 실제 지출 내역을 하루 단위, 주 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을 작성함으로써 내 소비생활을 알고 조절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미리 정해놓은 금액만큼 현금카드에 넣어 생활한다. 그러면 꼭 필요한 만큼만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는 할 수 없게 된다.

(사례137) 소비습관의 변화로 충동구매를 억제하고 절제하는 소비습관을 들일 것이다. 내가 사는 물건들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것이다.

2) 기부와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수강생들은 소비와 윤리 수업에서 소개된 녹색소비, 로컬소비, 공정무역, 공정여행, 간소한 삶, 기부와 나눔, 공동체화폐운동 등 윤리적 소비의 모든 영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부와 나눔은 현재보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응답이 두드러져 정기적인 금전적 기부는 물론 재능기부, 헌혈 등 다양한 기부를 모색하고 있었다 (59.7%, 114명).

(사례 135) 앞으로는 기부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매달 몇 만원씩 기부할 생각이 다. 또 지역공동체 활성을 위해 멀리 있는 대형마트보단 가까운 지역 슈퍼로 가고 자주 애용하지 않던 집 앞 농협에서 친환경마크가 붙은 야채와 과일 등을 애용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해야 된다고 느끼는 건 윤리적 소비를 하는 소비자가 되고 싶다. 항상 머릿속에 윤리적 소비를 행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언제 어디서나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다.

(사례 8)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 제 3세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니 술 좀 안 먹고, 옷 좀 덜 사고 그러한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기부와 나눔 시간의 비디오 자료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사례 162) 기부를 돈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능도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서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윤리적 소비로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중략) 먼저 학교에 있는 조혈모세포 기증센터에 가서 조혈모 등록을 하고, 정기적인 헌혈을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방학 동안은 포항에 내려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 멘토링을 할 예정입니다(신청서를 냈습니다)

3) 공동체화폐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공동체화폐운동은 수강생들에게 비교적 새로운 윤리적 소비의 실천영역이다.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면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화폐운동을 알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현재 공동체화폐운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외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공동체화폐운동을 배우거나 현재 우리나라의 공동체화폐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례수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4.1%, 8명).

(사례 68) 무엇보다도 난 공동체화폐운동을 알게 되어 뿌듯하다. 경제가 좋지 못하면 단순히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끝이었다.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것은 사회 분위기가 탓이라고 생각하고는

또 끝이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 줄 알았다. 너무나도 적응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공동체화폐를 통해 자연히 로컬 소비가 늘고 그로 인해 소비가 절제되면서 자원을 절약하고 또 로컬 소비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게 되고 공동체화폐운동을 통해 농업을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가격의 갑작스런 변화도 잡을 수 있으니 농부들도 매 계절마다 제 값 못 받아서 힘드실 일도 없고.....

(사례 27) 해외에 가보게 된다면 일본의 지산지소 운동을 하는 곳을 꼭 방문하고 싶다. 가봐서 어떻게 운영되는 지 공부해 와서 꼭 우리나라에 지산지소 같은 운동을 점차 늘려가 보고 싶다.

(사례 23) 공동체화폐운동의 실천방법 중 하나인 공동체운동 중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마포구의 성미산 운동에도 참여해 보고 싶다.

한편, 공동체화폐운동은 대학생들이 쉽게 실천하기 힘들어하는 영역 중의 하나로 현재 실천하였다고 응답한 대학생 역시 관련 사이트의 회원 가입부터 시작하여 앞으로의 활동을 기약한 경우였다.

(사례 67) 공동체화폐운동에도 동참하려고 합니다. 한발레츠 사이트에 이미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시험 기간 후에 꼼꼼히 살펴 저희가 만든 영상처럼 선행과 동시에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겠습니다.

4) 윤리적 소비를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수강생들은 자신의 소비생활에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겠다는 결심에 그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윤리적 소비를 알려주고 실천하도록 돕겠다는 경우도 많았다 (16.2%, 31명).

(사례 151) 주위 사람들에게 홍보도 많이 할 것입니다. 미니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고도 올려 놓고, 친구를 만나면 공정무역에 관해 설명해 주고 우리 주변에 공정무역을 하는 곳을 알려주고 상황에 따라 약속 장소를 공정무역을 실천하는 곳으로 잡

을 것입니다.

(사례 18) '나 하나가 한다고 달라지겠어?'라는 마음을 버리고 일단 주변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실천하고 이루어 나가도록 더 노력해야겠다.

(사례 49)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강의가 내게 준 것처럼 주변 사람들, 가족부터 친구, 이웃까지 윤리적 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그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5)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직업이나 진로 선택하기

수강 후 윤리적 소비를 알게 되면서 영향을 받아 자신의 진로와 전체적인 삶의 방향을 바꾼 경우도 있어(3.1%, 6명) 윤리적 소비에 대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례 130) '소비와 윤리'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바로 대학원 전공을 정한 것이다. 화학과 대학원 중에서 반도체와 태양전지 전공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 반도체는 요즘 수요가 많아 일자리도 많고, 어느 정도 보장된 길이지만, 사실 태양전지 분야는 아직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나의 이익보다는 태양전지라는 친환경 산업을 통해 좀 더 나아질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앞으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태양전지에 관해 배우고 이 분야의 연구개발직에 종사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일할 것이다.

(사례 153) 내 자신이 직접적으로 착한 초콜릿을 사 먹기도 하고 유료 기아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기부하기도 하며 실천해 나가니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목표도 생겼다. 그 목표는 직업적인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윤리적 소비를 실천해서 빈곤한 사람들을 도와 주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이 목표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생겨났다. 인권NGO 단체에서 활동하며 영어공부를 통해 나중에 도우러 간 나라

에서 원활한 소통을 하고 싶다. 나 하나 잘 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 행복하게 사는 원대한 꿈을 가진 포부가 있는 사람으로 이 수업이 날 바꾸어 놓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존의 모든 윤리적 소비 관련 연구들이 윤리적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지만 윤리적 소비 교육에 관련된 실질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교육을 통해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과 실천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즉 ‘소비와 윤리’라는 교과목 수강 후에 이전의 소비생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소비생활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윤리적 소비를 하면서 어떠한 갈등을 겪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윤리적 소비를 실천해 나갈 지를 묻는 개방형 질문에 답하도록 하여 이를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을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대학생들은 ‘소비와 윤리’를 수강하기 전에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수준에 차이가 많았으며 소비의 기준은 ‘나의 욕구’만을 고려하는 ‘나를 위한 소비’를 하며, 주로 가격이 싼 제품을 찾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었다. 또한 명품소비, 과소비, 충동구매를 하는 소비생활을 하며 소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또는 알더라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대학생들은 ‘소비와 윤리’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소비생활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 윤리적 소비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으며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소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소비의 기준이 좀 더 신중하게 바뀌면서 타인을 고려하는 소비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자신의 그러한 변화에 대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하여 소비선택의 기준이 ‘나의 욕구’에서 ‘타인과 공동체를 고려한’ 소비의식으로 변화되고, 거시적,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다양한 영역의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 주변에 권유하기도 하였다. ‘소비와 윤리’ 수강을 한 후에 녹색소비, 공정무역제품 소비, 로컬소비 등 다양한 윤리적 소비 실천 영역에 해당하는 소비행동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소비행동의 변화를 통해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나누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셋째, 그러나 대학생들은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면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동안 해왔던 소비습관을 바꾸어야 하는 어려움, 주변의 시선, 윤리적 소비에 대한 정보의 부족함, 윤리적 제품에 대한 정보와 접근의 어려움, 가격의 부담, 윤리적 소비 실천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은 ‘소비와 윤리’를 수강한 후에 윤리적 소비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앞으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소비를 신중하게 하고 소비를 줄이는 간소한 삶을 실천하겠다고 하였으며, 윤리적 소비의 전 영역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였다. 특히 기부와 나눔 그리고 공동체화운동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두드러졌다. 또한 주변에 윤리적 소비를 알리고 홍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더욱이 강의 를 수강한 후 앞으로의 진로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볼 때, 윤리적 소비에 대한 교육이 대학생 소비자를 윤리적 소비자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소비자교육 내용은 소비와 시장환경, 개인의 재무관리, 소비자피해구제 등과 같은 교과목을 통해 시장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소비자권리를 잘 보호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개인의 재정적인 관리를 잘 해나갈 수 있는가와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어 왔다. 이와 같은 소비자로서 사회 내에서 경제적 책임을 잘 할 수 있는 내용은 물론 더 나아가 법적 책임,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책임, 동시대 인류를 위한 책임과 같은 포괄적인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루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교육이 포함됨으로써 소비자교육이 균형을 이루고 기업과 소비자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교육효과를 확인한 윤리적 소비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대학에서 윤리적 소비 관련 교과목으로 개설함으로써 수강 대학생들이 윤리적 소비자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대학생, 윤리적 소비, 사회적 책임, 질적 연구 방법, 소비자 교육

REFERENCES

- Auh, S. Y. & Jung, J. H. (2011). The Curriculum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Tests of the Cultural Diversity in Families Course in the National Teachers' Educational College, *The Journal of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Education*, 29(1), 61-82.
- Cha, T. H. & Ha, J. Y. (2010). Why do Consumers Purchase Fair Trade Products?: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Consumption Culture*, 13(1), 1-20.
- Choi, E. J. & Kim, Y. S. (2007). An Effect of Values, Environmental Knowledge, and Environmental Involvement on the Ecologically Concerned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sumption Culture*, 10(3), 15-41.
- Chun, K. H. & Rhee, K. C. (2005). A Study on the Meaning of Consumption Culture of Community Currency Movement: Focusing on "Hanbat-LETS" Participant's Consumer Behavior,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4(4), 593-611.
- Chun, K. H., Hong, Y. G., Youn, M. A. & Song, I. S. (2010).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 Sigmapress.
- Hong, E. S. & Sin, H. Y. (2010). The Ethical Consumptions and Related Variables of the Undergraduat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5), 131-149.
- Hong, E. S. & Sin, H. Y. (2011). A Study on Ethical Consumption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Classification and Analysis according to the Ethical Consumption Behavio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4), 801-817.
- Hong, Y. G. (2009). *A Case Study of Ethical Consumer in Korea*, Catholic University, Korea.
- Hong, Y. G. & Song, I. S. (2008). A Study of Cases of Ethical Consumption in the Analysis of Purchasing Motives of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Journal of Consumption Culture*, 11(3), 23-42.
- Hong, Y. G. & Song, I. S. (2010). A Case Study of Ethical Consumer in Korea, *Journal of Consumption Culture*, 13(2), 1-25.
- Huh, E. J. (2011). The Determinants of Consumer's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on the Ethical Product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2(2), 89-111.
- Huh, K. O. (2005). The Determinants of Consumers' Pro-Environmental Behavior in the Stage of Purchase, Usage, and Disposal,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4(1), 81-94.
- Jung, J. W. (2011). In-depth Study on Ethical Consumption Behavior Related to Cloth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ption Culture*, 14(1), 49-73.
- Jae, M. K., Seo, J. H. & Kim, Y. O. (2004). College Students' Consumer Non-ethics and Related Facto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3(6), 891-901.
- Kim, H. C. (2006). Analyses of Consumers' Non-Ethical Behavior Status and the related Facto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5(6), 1015-1023.
- Kim, J. E. & Rhee, K. C. (2008). The Conceptualization and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Consumer Citizenship,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9(1), 47-71.
- Kim, J. H. (2004). Consumers' Non-Ethics Behaviors Depending on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3(3), 417-423.
- Kim, J. H. (2009). *A Qualitative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Consumers' Ethical Consumption Behavior*, Yonsei University, Korea.
- Kim, K. H. (2010).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Consciousness for Environmental Problems and Ethical Consumption Behaviors according to Lifestyles, *The Korean Civic Ethics Review*, 23(2), 305-322.
- Kim, S. W. (2003). A Study on Environment-friendly Consumption of Adolescents Consume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6), 105-117.

- Kor, A. R. (2009). Ethical Consumer Behavior in Korea: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Fashion Information and Technology*, 6, 54-62.
- Lee, J. H., Noh, J. K. & Kim, I. S. (2000). A Study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Environmentally Concerned Consumption Behavior, *Korean Management Review*, 29(2), 171-195.
- Lee, K. S. (2010). The Effect of Curriculum Construction for the Improvement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Journal of Law-Related Education*, 5(2), 53-73.
- Min, H. S. & Rhee, K. C. (1999). Consumers' Pro-Environmental Attitude and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1), 29-44.
- Moon, H. L. (2012). Changes in Perception of Infancy and Early Childhood among University Students after Attending the Lecture on Human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1(1), 71-82.
- Park, B. G. (2004). Effect Analysis of the College Students' Creativity Education using a Liberal-Arts Course, *The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8(2), 69-81.
- Park, M. H. & Kang, L. J. (2009). Study on the Concept and Practice of Ethical Consumpt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8(5), 1047-1062.
- Park, U. A. (1997). *The Married Women's Pro-Environmental Consumer Behavior*,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Rhee, K. C., Yeo, J. S., Min, H. S. & Yang, H. (1996). Ecologically-Concerned Product and Consumer's Willingness to Purchas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7(1), 109-126.
- Song, I. S. & Chun, K. H. (2009).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on Ethics of Consumption for Undergraduates, *Journal of Consumption Culture*, 12(3), 21-45.
- Song, I. S. & Jea, M. K. (2006). Materialism and Unethical Business Transactions of Married Women, *Journal of Consumption Culture*, 9(3), 185-206.
- You, D. R. & Sim, M. Y. (1998a). A Study on the Consistency of Socially Responsible Consumer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Environment Problem,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6(3), 123-140.
- You, D. R. & Sim, M. Y. (1998b). A Study on the Socially Responsible Attitude and Behavior of Consume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11), 1-16.
- You, D. R., Sim, M. Y. & Joung, K. O. (1996).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he Environmental Awareness Behavior of Consumer,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4(3), 197-210.
- Youn, J. T. & Han, H. W. (2011). Effectiveness of 「Women in Engineering」 Course, *Journal of Engineering ducation research*, 14(3), 3-8.
- Asano, H. (1990). *Marketing Research Strategy for New Product Development*, Korea Survey(Gallup) Polls. Ltd.
- Barnett C, Cafaro P & Newholm T.(2005), *Philosophy and Ethical Consumption, In the Ethical Consumer*, Harrison R, Newholm T, Shaw D., sage: London, 11 - 24.
- Carne, A., Matten, D.(2003), *Business Ethics : A European perspective, Managing Corporate Citizenship and Sustainability in the Age of Globalis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Chartrand, T. L. (2005). The Role of Conscious Awareness in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5(3), 203-210.
- Dijksterhuis, A., Smith, P. K., Baaren. R., & Wigboldus, D. H. J. (2005). The Unconscious Consumer: Effects of Environment on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5(3), 193-202.
- Mintel(1994), *The Green Consumer*, Vols 1 and 2. London : Mintel Research.
- Simonson, I. (2005). In Defense of Consciousness : The Role of Conscious and Unconscious Inputs in

- Consumer Choice.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5(3), 211-217.
- Vitell, S. J.(2003). Consumer Ethics Research: Review, Synthesis and Suggestion for the Future. *Journal of Business Ethics*. 43, 33-47.

접 수 일 : 2012. 04. 03.
수정완료일 : 2012. 05. 17.
게재확정일 : 2012. 06. 05.